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교육관에서 8월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집회 시간에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 보고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성경공부 시간에는 예언서를, 수요일 저녁집회 시간에는 '예수와 만난 사람들' 강의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2014년 청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은 오후 1시 세미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시간에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2차 기도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전교인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상민 씨와 이지은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30일(토) 오후 1시 뮤지엄 웨딩홀 1층 평화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한 공감력이 많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우는 자를 찾아가 함께 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출 1:8~2:10 / 시 124
롬 12:1~8 / 마 16:13~20

요한1서 2:15-17

오늘 식당 봉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박미란 민병배 박범희
 다음 주 식당봉사 :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김신실 심기섭 이순용 임주빈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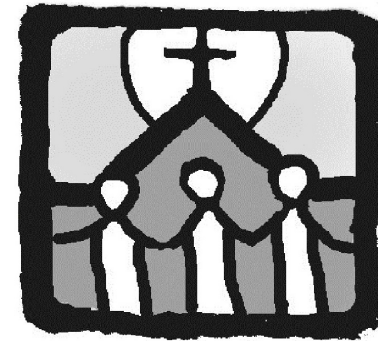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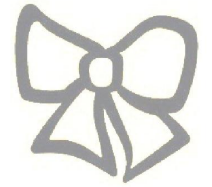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여름 무성하게 자라 있을 내고 열매를 내는 나무처럼, 각 교회학교 부서들이 여름행사를 통해 자람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자란 새싹처럼, 청과교회학교가 이 시대 희망의 징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유민이 아빠를 살려주십시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40일 이상 단식하며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무고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죽음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유가족의 외침을 외면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경혜	김문주	김순자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주영	김현주	김흥기	김희진	박홍재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성귀옥	김중현	심화섭	정영란	안길상	이형숙	안세진	오미경	오미숙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광섭	이광용	형인순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왕준	송상경	이준림	이호원	장아름	정선희	정종삼
정현선	조관행	홍선희	조순덕	차혜심	노미향	최다미	최철수	곽권희
한성건	정지혜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홍순복	

감사헌금

김남종	오복순	김인걸	문영혜	김정진	김혜정	김진중	김태정	김향자
김현근	유혜인	미림출장부페	오미경	원성운	윤정덕	구성실	장재영	장재영
김재영	전인섭	정윤성	조혜운	홍성식	이유리	홍순구	안홍숙	무명10

생일감사헌금

김재환 홍순복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이영순 무명2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심	심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은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마음으로 읽는 글

상 위의 손가락을 보는 나이

- 배영옥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할 때
 그 집 손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고들 한다
 그 말이 단순히 손가락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마흔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 생애는
 두레밥상 위에 손가락을 놓으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손가락들
 어제 옆집 아버지 친구는
 서낭당 언덕에서 돌멩이에 걸려 돌아가시고
 건넌집 아이엄마는 오늘 딸 쌍둥이를 낳았다/
 나도 이제 상 위의 손가락에 숨은 배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이/
 수저통에 가지런히 누워 있는 손가락을
 상 위로 옮기는 가벼운 노동을
 아직 생각이 어린 아이들에게 시킨다
 몸과 생각에 물기가 많은 아이들은
 죽음과 생의 신비가 손가락에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딱딱딱 말발굽 소리를 내며
 아이는 상 위에 손가락을 식구 수대로 가지런히 놓고 있다
 눈대중으로 손가락 숫자를 헤아려본다/
 가장 귀중한 손가락을
 나는 이미 스무 살에 잃은 적이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살피며 사십시오. 곁에 있는 작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은 하나님나라의 입구입니다.

아멘.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만의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젠 이웃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때 열리는 하나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집회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목사 기도 : 신진식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권사	박재란 선생 추현영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조문규 황현성 임영선 진정숙 이오복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올 여름 에너지 농사 잘 지으셨나요?

기세등등하던 여름도 이제 가을에게 자리를 양보하려나 봅니다. 어느새 여름의 끝. 올해 어떤 여름 보내셨는지요. 더위만큼이나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아니면 내 삶 어느 한 모퉁이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닮은 곳 없어, 열매 맺는 계절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지요.

불행하게도 저는 후자에 가까운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제 마음을 불편케 하는 사진 한 장 때문에 말입니다. 사진 속에는 제 고향 할머니 같은 분들이 거대한 트럭과 굴삭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셨습니다. 땀뻘뻘한 글씨가 담긴 피켓을 든 채로. “우리가 돈을 달라했나, 집을 옮겨 달라했나, 그냥 내가 농사짓고 밭짓던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해 달라꼬”, “한 평생 사이좋던 이웃들이 갈갈이 찢어졌는데 이제 우에 살겠노.” 실제로 제 고향과 얼마 머지않은 곳, 경상도 청도와 밀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산(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부터 서울까지 한 번에 많은 양의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송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밀양과 청도에서 일어나는 반목과 갈등의 끝에 서울에서 편히 전기를 쓰고 있는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들 절규 속의 두 단어, ‘짓다’와 ‘찢어지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말 ‘짓다’라는 표현은 ‘농사, 밥, 집’ 등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 이는 전통 사회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타인으로부터 생산된 것을 내가 소비하는 개념이 아닌, 직접 나의 노동과 정성으로 만듦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전기에너지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럼 나는 전기를 ‘지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기에너지를 지어 본 적이 없는 나는 밀양과 청도의 할머니들께 너무 많은 고통을 드리면서 그저 가져다 쓰기만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고단한 얼굴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으로 ‘찢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찢어짐의 고통은 생명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들이 ‘동네가, 이웃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하시며 고통스러워한 것은 그 공동체가 생명 있는 유기체와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로 인한 생명이 있다면 그 찢어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과 행동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전기에너지를 짓는 일, 그리고 찢어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우리 청파교회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8년 이래로 교회 지붕에서는 3kW 태양광발전기가 전기에너지를 ‘짓고’ 있습니다. 태양을 경작해 전기에너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이 겪는 찢어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전기 절약도 에너지 농사꾼이 되는 한 방법입니다. 전기 요금을 아무리 많이 낼 수 있는 부자라 해도 전기 절약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밀양의, 청도의 이웃들이 그 땅에서 생명을 키우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평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올 여름, 나는 얼마나 훌륭한 에너지 농사꾼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야겠습니다.